

건전한 계약사육 풍토 조성으로 회원의 권익 보호를...

◇ 취재 / 김동진 기자/차장
(dj@poultry.or.kr)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육계산업이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고병원성 AI와 지난달 초 폭설 피해 AI 재발생 등으로 양계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현실을 뒤로하고 예산지역 육계인들이 다시 재기를 다지고 있다. 지난 15일 예산군 축산회관 회의실에서는 모처럼 지역 육계인들이 모여 그동안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앞으로 육계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점심도 닭요리로 마련되어 AI를 완전 불식시키자는 마음으로 행사로 월례회의를 마련하였다.

예산육계지부(지부장 조복형)는 육계업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서로 단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조복형

지부장을 필두로 정규태 부회장과 신현철 사무장, 박영수 감사 등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부를 지난해인 2003년 3월 5일 탄생시켰다. 물론 과거에도 모임체는 있었으나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아 지지부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양계협회 결성이 급물살을 탄 것은 예산군(군수 박종순)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축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축산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었으며, 재정적 지원(4억4천만원)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지

난 2월 14일 입점식을 가진 축산회관내에는 양계협회를 비롯,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봉협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세미나 등 각종 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대 회의실까지 겸비하고 있어 축산인들의 구심체로 거듭나고 있다.

예산지역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 회원들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조복형 지부장

약 60여 농가로 사육규모는 250만수(평균 사육규모 3~5만수)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육계지부의 회원은 현재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I가 발병했을 때 가장 위협을 많이 받았던 곳이 예산 지역이었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인근 천안과 아산까지 AI가 확산되면서 발생지역이 남서쪽으로 이동경향을 보였고, 지난 2월 4일 발생한 곳이 아산지역 종오리 농장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회원들은 발생경로를 주시하며 자체 방역에 힘을 기울인 결과 예산지역까지는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예산지역 양계인들의 철저한 방제 노력 덕분이었다. 예산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동 방역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60여 농가들에게 소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관급 백신(ND 등) 지급은 물론 소독기의 구입 등을 통한 자체 방역체제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초 충청도와 영호남 일부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예산육계지부 회원들도 4개 농가에서 9개동의 계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회원들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바라고 있다.

예산지역에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열사는 물론 일반 인티회사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치 계열사들의 천국을 방불케하고 있으며, 또한 전 농가들 중의 95% 이상이 계열농가에 참여하고 있다.

조복형 지부장의 가장 큰 숙제는 이처럼 무질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열사들을 3~4개 회사로 줄이고 서로의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원활한 병아리 공급과 출하를 통한 양계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회를 이끌어 갈 것임을 밝혔다.

비록 지부가 결성된지 1년밖에는 안되었고 살림살이도 여의치 않아 직원을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바탕으로 회원 스스로가 협회에 관심을 가질 때 예산육계지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조복형 지부장은 거듭 강조하였다. **양계**



▲ 협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신현철 사무장(오른쪽)과 정규태 부회장



▲ 월례회의가 끝나고 닭요리로 식사를 하고 있다.



▲ AI와 폭설을 딛고 일어난 회원들이 한자리에... (박태원 흥성 지부장(좌하)도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